

한라시론



김용성 시인·번역가·교사

‘탄탄한 독서’가 그 어떤 선행학습보다 먼저다

자녀에게 독서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학원 다니느라 여력이 없어 독서를 소홀하게 된다는 학부모가 많다. 시간 투자 대비 효용성이 있는지 독서를 회의적으로 보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먼저 독서의 학습 효용성을 따져보자. 교과서를 깊이 이해하고 통찰하는 능력은 독서를 통해 길러진다. 문제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된다고 절로 학습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히려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이 줄어들어 독서의 질적 발달이 결핍된 상태에서 고등

학교 내신이나 수능 공부할 때 그때야 비로소 독서의 진가를 확인하고 후회하게 된다.

수능에서 고득점을 맞으려면 단순 이해보다 추상적 논리적 사고에 능하며 ‘유추’와 ‘추론’을 통한 지식 응용과 확장에 능숙해야 한다. 고등학교 독서 영역 성취 기준은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와 응용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함’에 있다. 책을 통찰하고 적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은 ‘독서 기본기’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탄탄한 독서력은 국어뿐 아니라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과목에서 고도의 문해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매리언 울프는 독서 발달 단계를 1단계 예비 독서자, 2단계 초보 독서

자, 3단계 해독하는 독서자, 4단계 유창하게 독해하는 독서자, 5단계 숙련된 독서자로 구분한다. 수능 고득점은 4단계 ‘유창하게 독해하는 독서자’와 관련된다. 초보 독서가 단계에서 불능을 대비한다고 국어 학원을 전전해도 평소 독서를 소홀히 했다면 교과서 참고서를 제대로 읽어내기도 쉽지 않다.

또한 독서는 그 자체가 ‘두뇌 트레이닝’이며 ‘공부의 기초 체력’이다. 초등학교 때는 사실 그 어떤 선행보다 독서를 최우선으로 하는 게 현명하다. 독서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이로운도 있지만 학습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렇다. 공부를 잘하고자 한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읽고 생각하고 헤매고 다시 읽고 정리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치며 ‘탄탄한 독서’ 활동에 빠져볼 기회를 줘야 한다. 책을

붙들고 절로 공부되는 게 아니듯, 논리적 흐름을 잡고 난해한 내용을 조리 있게 이해하고 지식을 구조화하는 두뇌 활동을 충분히 연습해본 아이가 ‘유창하게 독해하는 독서자’로 학습 활동을 더 능숙하게 실천할 수 있다. 아무리 기술 좋은 축구 선수도 기초 체력이 안 되면 점점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독서는 나무에서 ‘뿌리’와 같다. 눈엔 안 보이지만 나무가 얼마나 튼튼하게 성장할지 강풍에도 버틸 수 있는지 가능케 해 준다. 뿌리가 빈약한 상태에서 줄기가 커지고 열매가 풍성할 수 있을까? 열매가 중요하다고 해서 선행학습에 집착하기보다 당장은 성과가 눈에 안 보여도 ‘튼튼한 뿌리’가 자리 잡도록 줄기 때부터 탄탄한 독서를 제대로 즐기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 훨씬 이익이라는 점을 힘주어 강조한다.

사설

교육교부금 배분 개편 일방적 추진 안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 교육사업이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개편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부금 재원 배분을 개편하기 위해 교육교부금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비효율적인 사업에까지 교부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배분 비율에 대해 개선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교부금 활용 범위를 기존 초·중·고등학교 중심에서 유아와 대학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인구 감소에 맞춰 재정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부금 배분 구조가 개편될 경우 재정투입 감소로 인해 지역 교육사업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교부금은 각종 교

육사업 운영과 학교 시설비, 인건비 등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교부금이 조정되면서 배분비율이 낮아지면 인건비와 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는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교육사업비 예산이 감축될 수밖에 없다.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교부금 배분 구조 개편에 반대하고 나선 이유다. 당선인들은 학생인구가 감소할수록 인공기능 교육 전환, 학생 안전, 교원 회복, 교육 자치와 관련된 재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교부금 배분 구조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할까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치면서 추진해야 한다. 배분 구조를 개편했을 경우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 교육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 안전해야 제주 미래 있다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가 사용하던 텀블러에 체액을 남기고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고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 안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는 물론이고 제주도지사 당선인까지 나서 대책 마련 목소리를 냈다.

위성곤 당선인과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이번 일을 학교 안전망의 붕괴를 보여주는 사례로 진단했다. 교사들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보호자들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제주도정에 이 같은 문제를 교육청 소관으로만 돌리지 않고 종합 안전 대책을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교사노조가 이번 사건을 알린 데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

합회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대책을 촉구했다.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사건의 “단순한 건조물 침입이나 재물손괴 차원을 넘어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무참히 짓밟은 교육에 대한 테러 행위”로 본 이들은 피해 교사 치유 지원과 함께 학교 보안 체계 전면 개편을 주문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외부인 학교 출입으로 인한 범행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원들의 안전 문제를 위해 학교 건물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보안 강화 대책이 뒤따랐다. 하지만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감시하고 차단할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 현장이 안전해야 제주의 미래가 있다. 학교 출입 통제 실태 점검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열린마당

즐거운 물놀이의 완성, 안전수칙 준수에 있다



오성제 서귀포소방서 효돈남성의용소방대장

최근 낮 최고기온이 30℃를 웃도는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제주의 푸른 바다를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과 도민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용객 증가와 비례해 안전사고의 위험 역시 소리 없이 높아지는 중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물놀이 사망자는 총 112명에 달한다.

안타까운 사고는 벌써 시작됐다. 지난 5일 제주도 구좌읍 해안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30대 관광객이 물

에 빠져 숨지는 비극이 있었고, 12일에는 같은 구좌읍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30대 여성과 9세 어린이가 물에 빠졌다가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조되기도 했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대부분 순간적인 부주의와 안전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된다. 안전하고 행복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입수 전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충분한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 또한 물놀이 중에는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입수 후 입수는 절대 금지해야 하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무모한 직접 구조는 삼가야 한다. 물놀이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나는 것인 만큼, 우리 모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위성곤 당선인 “여름철 자연재난 철저히 대비”

장마철 현장 안전관리 강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여름철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관계부서에 주문.

위 당선인은 17일 공사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현장에서 양재운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으로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기후위기 대응 선제적 재난 예방 강화·공사 현장 안전 관리 등을 강조.

위 당선인은 “이제 장마철로 들어서는데 만큼 안전관리 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도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방체계를 강화해 달라”며 “특히 장마철 공사 현장은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현장 안전수칙 준수와 관리감독 강화, 공사 관계자와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 이상민기자

“AI 발생 대비 방역망 가동”

○...제주시가 오는 8월까지 가급적 65곳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소독·방역시설 실태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

이에 ▷농장 전실·방역실·CCTV 등 법정 의무 시설의 설치·정상 작동 여부 ▷출입 차량·인원에 대한 소독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 ▷주 1회 이상 자체 소독 이행 여부 등으로 농장별 방역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

송상협 정경축산과장은 “AI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철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가급적 방역실태를 꼼꼼히 점검해 빈틈없는 상시 방역망을 가동하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이승규(1960. 08. 08. 생)
• 최후주조 : 제주시 서사로11길 10-6, (삼도이동)
상기자는 2026년 3월 29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6년 6월 12일 제주지방법원 2026년단21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시 서사로11길 10-6, (삼도이동)
2026. 6. 18.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이동호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만에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필시 승수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자치도

칼라강판 조립식건물 녹슬고 비새는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백도라지분말
관심과 사랑 주시면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